

농자천하지대 ‘봉’

〈農者天下之大〉



3일 오후 광주 남구 대지마을의 한 농가에서 농부가 곡물건조기를 통해 말린 나락(벼)을 대형 마대에 담아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쌀값 하락 힘든데 농사용 전기로 인상률 가정용·산업용의 3~5배
비교값도 2배 올라 ... 농업 지속 가능하려면 생산비 지원 나서야

농업용 전기요금과 농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쌀값 하락으로 힘든 마당에 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 인상에, 전기요금까지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농업에 투입되는 모든 기본 요소의 값이 인상됨은 물론 내년에도 전기요금 등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은 생산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농민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에서는 농사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kWh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했다. 이 때문에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인 반면, 농업 생산·유통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은 36%, 양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갑’은 74%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산업용, 일반용 등

의 약 4배에 달해 전기 사용이 많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단가 상승 및 농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과 전남도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상을 조정할 중 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인상 차액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농식품부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농사용 외 전기요금의 평균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각각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농자재값도 고공행진이다. 지난 2021년 8월 무기질 일반비료 1t당 가격은 63만여원, 원예비료 1t당 가격은 54만여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 126만여원, 89만여원으로 각각 대폭 상승했다.

이처럼 전기요금, 농자재 가격 등이 대폭 오르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농민사와 발농사는 물론 비닐하우스 농업 등 광주

외곽지역과 전남 농업지역의 농가들은 인건비는 차치하더라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농사를 계속 짓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담양군 창평면에서 6만평의 논농사를 짓는 강현호(47)씨는 “인건비는 물론이고 면세유, 비료 등 모든 농자재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3~4년 전에 비해 생산비가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최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업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생산비는 전정부지도 치솟고 농산물 가격은 정부의 무책임한 가격 정책으로 날뛰기를 거듭하고 있다”며 “농기계 값과 운영비, 비료 값, 농약 값이 급등한 상황에 필요한 농업 생산비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농산물 안전 지원조례의 기존 가격 현실화, 대상 농가·품목 확대, 가격안정위원회 역할 확대 등과 함께 비료와 면세유 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 확대, 농민수당 지급금 인상, 태양광·풍력 발전 민원 발생지역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등도 함께 제시했다.

강호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농민들이 농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농사용 전기료마저 높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8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22년 12월 8일(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주소를 첨부해주시요.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가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결봉투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3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미, 4연속 자이언트 스텝 3.75~4%로 상승 한국과 1.0%p 차이...한은, 금리인상 불가피

미국이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 연속 밟으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현재 3.00~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15년 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한 건 인플레이션(고물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

이런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3.00%)과 기준금리 격차는 1.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통화 긴축에 따라 달러가 비싸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미국 내수가 부진하면 한국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수입 가격이 올라 고물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더 커졌



다.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으로 대응하면 한미 금리 격차는 최소 1.25%포인트에서 최대 1.5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10월에 이어 사상 첫 2연속 빅 스텝에 나서도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 1.25%포인트까지 격차가 난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高)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북스 - '조선의 대기자 연암' ▶14~15면

손흥민 수술 ... 월드컵 '손' 못 쓰나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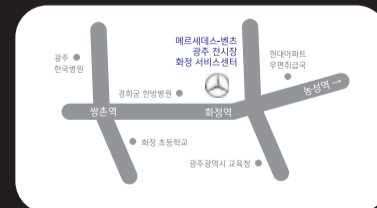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 독일 베를린 ▶22면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원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문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문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도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회 도상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0, 공차중량(kg) : 2405,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S 4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회 도상 3.8,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회 도상 3.8,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차량의 표준모드에 의한 충전거리 도출 상대,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상부하 편차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차량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